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편의식품 구매 비교 연구

†장 재 선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urchase of Convenience Foods according to the Food-related Lifestyle in Chinese Students

†Jae-Seon Jang

Dept. of Food & Nutrition, Gachon University, seongnam 13120,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on the convenience foods purchase according to the food-related lifestyle. The subject was 250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region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 factor analysis extracted five comprising food-related lifestyle, which we named health seeking (factor 1), taste seeking (factor 2), easy seeking (factor 3), popularity seeking (factor 4) and safety seeking (factor 5).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liability analysis, the food-related lifestyle showed an average of 3.16 and 0.813 for Cronbach's alpha coeffici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selection of convenience foods according to health seeking ($p<0.05$). Also, the popularity seeking and easy seeking lifestyle facto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reason the purchase criteria of convenience food ($p<0.05$).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venience foods of selection criteria according to health seeking, taste seeking, easy seeking, popularity seeking and safety seeking types ($p<0.05$). A significant positive result of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convenience foods purchase ($p<0.05$) was shown for the health seeking and taste seeking. A significant positive result of the external characteristics of convenience food purchase ($p<0.05$) was shown for the health seeking, taste seeking and safety seeking. In the correlation between convenience food purchase factor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nutrition and ingredients are highest with 0.46, 0.445 in cooking and price, 0.441 in ingredients and expiry date, 0.383 in brand and price, 0.361 in taste and easy.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nvenience food consumption in Chinese students.

Key words: convenience food, food-related lifestyle, Chinese students

서 론

성인기 진입 시기에 해당하는 대학재학 시기에 형성된 생활습관은 개인의 신체 건강도를 좌우할 수 있고, 나아가 노년기까지 연결된 일생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자신이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아, 이 시기에 형성된 바람직하

지 못한 식행동으로 불규칙한 식사와 높은 아침 결식율을 들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인 경우, 체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잘못된 식행위를 유도하고, 이 시기에 고정화된 식행태가 성인기에까지 이어지게 된다(Cho & Paik 1995; Park 등 1997; Park & Kim 1997).

세계화 지향 정책에 의해 각 나라마다 서로 문화·경제적 영역의 활발한 교류로 다양한 국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

† Corresponding author: Jae-Seon Jang, Dept. of Food & Nutrition, Gachon University, Seongnam 13120, Korea. Tel: +82-31-750-4767, Fax: +82-31-750-5974, E-mail: jangjs@gachon.ac.kr

며, 그 예로 유학생의 유입과 유출 현상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유학생의 수는 2009년 80,985명에서 2010년 87,480명으로, 2011년 88,46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81,847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6년 11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에 의하면 재한 외국인 유학생은 117,6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은 67,252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57.2%를 차지하고 있다(KIS 2016).

유학생은 유학생할 중 고국에서와는 다른 생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의식주 중 특히 국가 간 차이가 많은 식생활은 고국에서와는 달리 익숙하지 않은 식품의 선택과 조리 환경의 변화, 식품 섭취에 있어서 스스로의 결정권이 커진다. 유학 후 고국에서의 생활환경과 달라진 여러 식생활 환경은 이들의 성인기의 식생활 행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변화 정도에 대한 대응이 바르지 못할 경우 건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바람직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식생활 습관은 추후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하나, 여러 경제적·환경적 여건의 변화와 제한으로 인하여 건강에 위배되는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Park & Choi 2006).

이와 함께 대학으로 진학 후 친구나 동료집단과의 사회생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 쉽고, 이는 자신의 기존 식사 유형을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 습관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wang & Lee 2007). 잦은 결식이나 외식, 폭식과 과식뿐만 아니라, 과다한 음주 및 흡연 등은 건강에 위배되는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게 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대생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과 지나치게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무분별한 체중 감소를 시도하여 일부에서는 영양불량으로 인한 빈혈 및 체력 저하, 골밀도의 감소 등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Lee 등 2010).

급격한 사회문화적 및 경제적 변화는 식생활 양식도 변화하여 인간의 식습관 및 식품 소비 등 식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로 알려져 있다(Lee YG 2007).

식생활 관련 라이프스타일 선행연구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와인선택 속성(Lim GM 2006),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쌀 가공식품 소비태도 분석(Lee HW 2010). 또한 주부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고추장 소비형태(Kim & Kim 2009),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커피전문점 선택 행동(Woon YE 2010), HMR의 선택 속성 요인과 식생활차원 라이프스타일(Kim & Kwon 2007) 등이 보고되고 있다. Jung & Yoon(2007)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외식소비

성향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중요한 소비자들의 가치와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전반적인 식품 소비에 관련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편의식품 소비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 거주한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편의식품 구매형태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편의식품 구매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총 300부로 무작위 배포하여 이 중 28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내용이 불충분한 자료 39부를 제외한 총 250부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선행 연구(Seung HS 2005; Woon YE 2010)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조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인 성별, 소속, 한국 거주기간, 거주형태, 민족, 한국어 능력정도, 한달 식비 등 7개의 항목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문항은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를 토대로 하여 25개의 측정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범주 중 한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편의식품에 대한 문항으로는 구매정도, 조리방법, 구매하는 이유, 구매 시 선택하는 기준,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을 조사하였다.

3. 자료의 통계처리

조사된 설문 자료는 SPSS(version 23)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문항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편의식품 구매와의 차이는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편의식품의 구매를 내향추구성(맛, 영양, 성분)과 외향추구성(가격, 유통기한, 브랜드)으로 구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편의식품의 선택 기

준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검증은 $p < 0.05$, $p < 0.01$ 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자 전체 250명 중 성별로는 남자 109명(43.6%), 여자 141명(56.4%)으로 나타났고, 소속은 한국어 어학원 107명(42.8%), 대학교 117명(46.8%), 대학원 26명(10.4%)이었으며, 거주기간으로 보면 1년 미만 107명(42.8%), 2년 미만 49명(19.6%), 3년 미만 48명(19.2%), 4년 미만 25명(10.0%), 4년 이상 21명(8.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로는 기숙사 155명(62.0%), 자취 및 자택 77명(30.8%), 기타 10명(4.0%), 하숙과 고시텔이 각각 4명(1.6%) 순으로 나타났고, 민족형태는 한족 226명(90.4%), 조선족 13명(5.2%), 기타 소수 민족 11명(4.4%)으로 한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어 능력 정도로는 급수 없음이 44명(17.6%), 1~2급이 21명(8.4%), 3~4급이 149명(59.6%), 5~6급이 36명(14.4%)으로 나타나, 3~4급이 절반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달 식비로는 20만원 미만 20명(8.0%), 20~39만원 74명(29.6%), 40~59만원 86명(34.4%), 60~79만원 43명(17.2%), 80~99만원 17명(6.8%), 100만원 이상 10명(4.0%)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인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족이 많았으며, 주거기간은 1년 미만이며, 주거형태로는 기숙사로, 한국어 능력정도는 3~4급, 한달 식비는 20~60만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문항의 신뢰성

Table 2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각 문항별 신뢰도 분석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문항 중 건강추구는 3.14점, 미각추구 3.43점, 편의추구 3.09점, 유행추구 3.20점, 안전추구 2.96점으로 미각추구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0.813으로서 우수한 신뢰도를 보였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탐색적 분석인 경우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통상적인 경우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 0.8~0.9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평가한다(Hong SK 2011). 본 연구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813로 나타났는데, Oh & Jang(2014)의 탄산음료 소비형태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문항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800로 조사되었고, Choi 등(2013)의 건강기능성 음료 구매 특성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791로, Moon & Cho(2012)의 녹차 소비형태 연구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평균 0.780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나, 높은 내적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urvey group

	Spec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109	43.6
	Female	141	56.4
Belong	Language schools	107	42.8
	University	117	46.8
Residence period	Graduate school	26	10.4
	Less than 1 year	107	42.8
	Less than 2 year	49	19.6
	Less than 3 year	48	19.2
	Less than 4 year	25	10.0
Living	More than 4 year	21	8.4
	Dormitory	155	62.0
	Lodging	4	1.6
	Trace and home	77	30.8
People	Gositel	4	1.6
	Other	10	4.0
	Han	226	90.4
Korean ability	Korean-Chinese	13	5.2
	Other minorities	11	4.4
	None	44	17.6
One month food expenses	Grade 1~2	21	8.4
	Grade 3~4	149	59.6
	Grade 5~6	36	14.4
	Less than ₩ 200,000	20	8.0
	200,000 to less than ₩390,000	74	29.6
	400,000 to less than ₩590,000	86	34.4
600,000 to less than ₩790,000	43	17.2	
800,000 to less than ₩990,000	17	6.8	
More than 1 million won	10	4.0	

3.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편의식품 구매 비교

Table 3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편의식품 구매형태와의 차이를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이다. 편의식품 구매형태는 건강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p < 0.05$),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5$). 구체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은 편의식품 구매에서는 건강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식품의 조리방법에서는 미각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p < 0.05$), 나머지인 건강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5$). 구매하는 이유로는 편의추구와 유행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p < 0.05$), 건강추구, 미각추구, 안전추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5$). 편의식품 선택 기준에

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인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와 편의식품의 구매 요인인 맛, 영양, 성분을 고려한 내향추구성과 가격, 유통기한,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한 외향추구성과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5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편의

식품의 구매형태 요인 중 내향추구성과의 회귀분석한 결과, $R^2=0.050$, $F=2.572$ 로 유의수준 $p<0.05$ 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건강추구($\beta=0.152$, $p<0.023$), 미각추구($\beta=0.057$, $p<0.453$)와 안전추구($\beta=0.109$, $p<0.097$)는 편의식품 구매의 내향추구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의추구($\beta=-0.063$, $p<0.05$)와 유행추구($\beta=-0.027$, $p<0.05$)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의식품의 구매에서 맛, 영양, 성분을 고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in the food related lifestyle

Factor name	Factor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coefficient
Health seeking type	Go eat a piece of food considered healthy.	3.38	0.809	0.813
	The consideration of dietary obesity.	3.19	1.018	
	Consider the nutrition you eat.	3.23	0.927	
	Try not to eat instant food.	3.02	0.927	
	Often use natural foods, health foods, organic foods.	2.87	0.896	
	Mean	3.14	0.62	
Taste seeking type	Look around the house and eat delicious.	3.43	0.912	
	Wanted to taste a variety of changing your diet each side.	3.24	0.986	
	Tend to prioritize taste than nutrition in food choices.	3.58	0.987	
	The piece does not skimp on the diet compared to the other sectors.	3.40	0.970	
	Tend to feel better in the taste difference.	3.49	0.884	
	Mean	3.43	0.67	
Easy seeking type	The purchase is often the department stores, super cooked food.	3.02	0.903	
	The favorite part of the meal as meal preparation and time spent.	3.05	0.868	
	When you are busy and often resolve with meals such as bread, milk.	3.18	0.960	
	Relatively busy to eat out often.	3.29	0.938	
	If you tend to eat alone in the house a lot of snacks.	2.92	1.033	
	Mean	3.09	0.54	
Popularity seeking type	I like to see a new food to eat.	3.12	0.931	
	Even the first time you see delicious looking food purchases.	3.18	0.938	
	The acceptance of fast food and fashion pieces.	3.22	0.925	
	For fast and try to eat around the food.	3.35	0.925	
	The home side who knows what delicious food and trendy.	3.15	0.805	
	Mean	3.20	0.67	
Safety seeking type	Always check the validity when buying food.	3.48	1.134	
	Check the ingredients of the content when they buy food.	2.92	1.030	
	Make sure you buy a food additive food.	2.69	0.947	
	Do not buy the company does not know the product well.	2.81	1.006	
	I prefer a product that is clearly separated uses.	2.93	0.909	
	Mean	2.96	0.71	

Table 3. Difference of convenience foods purchase according to food related lifestyle

		Health seeking	Taste seeking	Easy seeking	Popularity seeking	Safety seeking
Purchase	Never	3.25±0.73	3.32±0.72	3.01±0.55	3.15±0.70	2.95±0.75
	Sometimes	3.20±0.58	3.47±0.63	3.09±0.54	3.19±0.62	2.94±0.74
	Often	2.87±0.53	3.37±0.70	3.15±0.53	3.25±0.75	3.02±0.62
	<i>F</i> ratio	7.111*	1.094	0.851	0.256	0.267
Cooking	Stay eat	3.12±0.75	3.12±0.73	3.12±0.54	3.09±0.59	2.96±0.76
	Microwave use	3.07±0.58	3.53±0.61	3.19±0.54	3.23±0.74	3.09±0.75
	Boiling	3.18±0.60	3.42±0.67	3.01±0.53	3.20±0.64	2.88±0.68
	Flips	3.05±0.52	3.65±0.25	3.15±0.75	3.30±0.60	2.85±0.19
	<i>F</i> ratio	0.660	3.007*	1.783	0.334	1.514
Reason	Affordable price	3.10±0.64	3.27±0.82	2.90±0.61	2.96±0.90	2.97±0.72
	Good taste	3.04±0.63	3.68±0.57	3.41±0.57	3.48±0.63	2.86±0.75
	Good nutrition	3.06±0.11	3.06±0.30	2.80±0.20	2.86±0.11	2.80±0.40
	Habitually	3.00±0.60	3.18±0.61	2.81±0.28	3.03±0.55	2.54±0.72
	Easy	3.15±0.60	3.48±0.64	3.10±0.52	3.23±0.62	2.98±0.70
	Saving time	3.21±0.63	3.35±0.67	3.12±0.58	3.15±0.68	3.08±0.71
	<i>F</i> ratio	0.883	1.423	2.221*	2.274*	1.772
Selection	TV advertising	3.40±1.00	3.40±1.00	2.80±1.00	2.60±1.00	3.00±1.00
	Improvised	3.15±0.50	3.44±0.63	3.08±0.52	3.23±0.64	2.91±0.71
	Eating s friend	2.84±0.42	3.26±0.59	3.02±0.55	2.96±0.40	2.64±0.61
	Frequently eating	3.09±0.68	3.53±0.64	3.11±0.60	3.19±0.69	3.03±0.65
	Reliable products	3.35±0.69	3.11±0.76	2.97±0.47	3.11±0.74	3.01±0.88
	New product	3.17±0.64	3.42±0.95	3.51±0.42	3.48±0.64	2.85±0.79
	<i>F</i> ratio	1.130	1.512	1.007	0.696	0.706

Value ar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Table 4. Internal characteristics of convenience foods purchase and food-related lifestyle factors

	B	Beta	<i>t</i>	<i>p</i> value
Constant	8.886		8.3981	0.000
Health seeking type	0.480	0.152	2.295	0.023
Taste seeking type	0.165	0.057	0.752	0.453
Easy seeking type	-0.225	-0.063	-0.876	0.382
Popularity seeking type	-0.079	-0.027	-0.354	0.723
Safety seeking type	0.296	0.109	1.666	0.097

The dependent variable = Internal characteristics of fast food consumption, $R^2=0.050$, $F=2.572$, p value=0.027

* $p<0.05$

한 내향추구성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중 건강추구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편의식품 구매의 외

향추구성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046$, $F=2.371$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 중 건강추구($\beta=0.052$, $p<0.439$), 미각추구($\beta=0.127$, $p<0.453$)와 안전추구($\beta=0.151$, $p<0.097$)는 편의식품 구매의 외향추구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추구($\beta=-0.083$, $p<0.05$)와 유행추구($\beta=-0.047$, $p<0.05$)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의식품의 구매에서 가격, 유통기한,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한 외향추구성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중 안전추구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편의식품을 구매함에 있어 건강과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 Jang(2014)의 연구에서 탄산음료의 소비형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내향성 추구인 경우, 건강과 편의추구는 음의 관계를, 미각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외향성 추구인 경우는 미각과 안전추구가 높게 나타났다. Choi 등(2013)의 연구에서는 건강기능성 음료

Table 5. External characteristics of convenience foods purchase and food-related lifestyle factors

	B	Beta	t	p value
Constant	12.905		11.957	0.000
Health seeking type	0.177	0.052	0.775	0.439
Taste seeking type	0.405	0.127	1.690	0.092
Easy seeking type	-0.320	-0.083	-1.144	0.254
Popularity seeking type	-0.147	-0.047	-0.608	0.544
Safety seeking type	0.444	0.151	2.288	0.023

The dependent variable = External characteristics of fast food consumption, $R^2=0.046$, $F=2.371$, p value=0.04

* $p<0.05$

구매특성에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인 미각추구와 건강추구가 높을수록 내향추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Oh & Kim (2012)은 커피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건강추구, 외식추구, 맛추구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 식품은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인 경우, 편의식품 구매형태 중 내향성 요인은 건강추구가 작용하며, 외향성 요인은 안전추구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편의식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6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편의식품 구매와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편의식품 선택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양과 성분의 상관계수 값이 0.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과 조리 0.445, 성분과 유통기한 0.441, 브랜드와 가격 0.383, 맛과 간편 0.361 순으로 나타났다($p<0.05$, $p<0.01$).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편의식품에 대한 구매는 영양과 성분으로 주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조리가 간편한 것으로, 성분에 따른 유통기한, 가격 대비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편의식품을 구매하는데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purchase of convenience foods

	Nutrition	Easy	Taste	Shelf life	Ingredient	Cooking	Price	Brand
Nutrition	-							
Easy	0.135*	-						
Taste	0.154*	0.361**	-					
Shelf life	0.252**	0.196**	0.278**	-				
Ingredient	0.465**	0.264**	0.248**	0.441**	-			
Cooking	0.162*	0.304**	0.135*	0.135*	0.340**	-		
Price	0.122	0.312**	0.208**	0.182**	0.226**	0.445**	-	
Brand	0.121	0.170**	0.090	0.164**	0.297**	0.345**	0.383**	-

* $p<0.05$, ** $p<0.01$

Choi EN(2013)은 탄산음료 선택에서 맛(66.8%), 가격(20.4%) 순으로 나타나 맛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인 경우, 편의식품 구매할 때 영양과 성분, 영양과 유통기한, 가격과 조리법을 보고 구매하는 경향을 나타나, 편의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 거주한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편의식품 구매형태와의 관계를 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별로는 남자 109명(43.6%), 여자 141명(56.4%)으로, 소속은 한국어 어학원 107명(42.8%), 대학교 117명(46.8%), 대학원 26명(10.4%)이었으며, 거주기간으로 보면 1년 미만 107명(42.8%), 2년 미만 49명(19.6%), 3년 미만 48명(19.2%), 4년 미만 25명(10.0%), 4년 이상 21명(8.4%), 거주 형태로는 기숙사 155명(62.0%), 자취 및 자택 77명(30.8%)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민족형태는 한족 226명(90.4%), 조선족 13명(5.2%), 기타 소수 민족 11명(4.4%)으로 한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어 능력정도로는 급수 없음이 44명(17.6%), 1~2급이 21명(8.4%), 3~4급이 149명(59.6%), 5~6급이 36명(14.4%)으로 나타나 3~4급이 절반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달 식비로는 40~59만원 86명(34.4%), 20~39만원 74명(29.6%), 60~79만원 43명(17.2%), 80~99만원 17명(6.8%)순으로 나타났다.

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문항별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건강추구는 3.14점, 미각추구 3.43점, 편의추구 3.09점, 유행추구 3.20점, 안전추구 2.96점으로 미각추구 문항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0.813로서 우수한 신뢰도를 보였다.

3. 편의식품 구매정도는 건강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낸 반면($p<0.05$), 미각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안전추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편의식품의 조리방법에서는 미각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낸 반면($p<0.05$), 나머지는 건강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구매하는 이유로는 편의추구와 유행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낸 반면($p<0.05$), 건강추구, 미각추구, 안전추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편의식품 선택 기준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편의식품 구매형태의 요인 중 내향추구(맛, 칼로리, 영양)와 외향추구(가격, 유통기한, 브랜드)의 회귀분석 결과, 각각 $R^2=0.050$, $F=2.572$, $R^2=0.046$, $F=2.371$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4. 편의식품 구매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양과 성분의 상관계수 값이 0.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과 조리법 0.445, 성분과 유통기한 0.441, 브랜드와 가격 0.383, 맛과 간편성 0.361 순으로 나타났다($p<0.05$, $p<0.01$).

References

- Cho MY, Park HY. 1995. Thiamin nutritional status of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assessed by dietary intake and urinary excretion levels. *Koreans J Nutr* 28:46-52
- Choi EN. 2013. Study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and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rea. MS Thesis, Gungook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W, Choi JY, Yon HS. 2013. A study on purchasing characteristics on health functional beverage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 *J Hotel & Resor* 12:179-196
- Hwang JH, Lee HM. 2007. A study on lifestyles, dietary habits,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behaviors of male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residence type. *Korean Comm Nutr* 12:381-395
- Jung HS, Yoon HH. 2007. A study on the dining-out consumption pattern of undergraduates by food-related lifestyl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0:93-117
- Kim NR, Kim HJ. 2009. A study on the consumption behaviors regarding red pepper paste according to the food-related lifestyles of housewive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9:1-8
- Kim SH, Kwon SM. 2007. The study on selection attributes and expenditures according to the HMR(Home Meal Replacement) customers' lifestyle. *J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25:16-30
-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6. <https://www.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 Lee HW. 2010. Consumers attitude toward rice processed foods based on food-related lifestyle.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Yeonsei Univ. Seoul. Korea
- Lee YG. 2007. A study on food purchase behavior according to wife's food related lifestyle.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 Seoul. Korea
- Lee YS, Kim SY, Wong G. 2010. Analysis on the health condition, meal type and snack preference of university in Chungnam province. *J Korean Living Sci Asso* 19:409-416
- Lim GM. 2006. A study on the wine choice pattern by food-related lifestyle.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Gyeonghee Univ. Seoul. Korea
- Moon YS, Cho HS. 2012. A study on the green tea consumption behavior depending on the food-related lifestyle. *Life & Science* 15:79-98
- Oh SC, Jang JS. 2014. The effects of food-related lifestyle on carbonated beverage consumption behavior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 Food Nutri* 27:1043-1050
- Oh YG, Kim KJ.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food-related lifestyle on coffee consumption behavior. *Asia-Pacific J Business Venturing & Entrepreneurship* 7:65-75
- Park HS, Lee HO, Sung CJ. 1997. Body image, eating, problems and dietary intake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urban area of Korea. *Korean J Community Nutr* 2:505-514
- Park SA, Kim HS. 1997. Relationship among drinking, exercises and dietary behaviors of college male students. *Soonchunhyang J Nat Sci* 3:683-689
- Park SJ, Choi SH. 2006.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Korean students in China. *J Korean Acad Funda Nutr* 13:269-274
- Seung HS. 2005. A study on the bakery markets consumption pattern by food-related lifestyle.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Univ. Seoul. Korea
- Woon YE. 2010. A study on the specialty coffee shop selection attributes by the food-related lifestyle.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Joongang Univ. Gyeonggido. Korea

Received 14 September, 2016

Revised 26 January, 2017

Accepted 07 February, 2017